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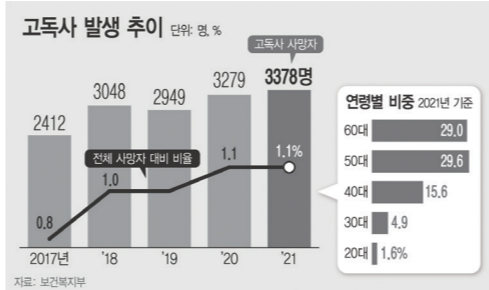
‘외로운 죽음’ 고독사, 작년 3378명…남자가 5배 많았다

보건복지부, 국내 최초 전국 단위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2017년 2412명→2021년 3378명 고독사…매년 증가세
 남성 사망자, 女보다 5.3배 더 많아…극단적 선택 17.3%

1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 이상, 그 중 과반은 50~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한 전국 단위 고독사 관련 조사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했으며 경찰청으로부터 공유 받은 형사사법정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이다.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



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다.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 사망자 수가 2817명, 여성은 529명으로 5.3배 차이를 보였다. 2017년부터 연평균 고독사 사망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은 5.6%다.
 연령별로는 50대 29.6%, 60대 29.0%로 50~60대가 58.6%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 비중은 17.3%인데 50대는 16.9%, 60대는 10.7%였지만 19세 이하는 100%였고 20대 56.6%, 30대 40.2% 등 연령이 낮을수록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하고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

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이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50.3%가 주택, 22.3%가 아파트, 13.0%가 원룸이다.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가 22.4%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1.9%, 이웃주민 16.6%, 지인 13.6%, 직계혈족 8.5%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 1분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에 사망자 장례 지원 뿐만 아니라 최초 발견자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괄해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연말연시 제과점 위생 특별 점검.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13일 북구 한 제과점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빵류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20~22일 비대면 사전 판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내년 설 명절 승차권을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설 명절 기간인 2023년 1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운행되는 KTX·ITX·새마을·무궁화 열차 승차권이다.

코레일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 10%를 우선 배정했다.
 예매 첫날인 20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만 전화접수 또

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예매가 가능하다.
 2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22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기간 예약한 승차권은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6년째 답보 상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조속한 선정 촉구”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국회 발의된 특별법 제정 촉구”

6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시민협의회가 조속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 성과보고·대정부 촉구대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하루빨리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시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016년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지만 대구·수원과 달리 광주는 현재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 조속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성과 보고, 대회사, 축사, 대정부 촉구문 낭독 순으로 열렸다.



지난 11월 2일 송갑석 국회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주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정으로 원 사업 시가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단지, 이전 지역 지원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식이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5조 7480억 원을 들여 종전 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새 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 프로젝트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